

기사입력: 11.30.10 10:58

인쇄하기

LA 회계법인 CKP, 동부 영업 확대 포트리에 사무소 개설



회계법인 CKP(Choi, Kim & Park, LLP) 관계자들이 29일 본사를 방문했다. 오른쪽부터 최기호·박경욱·김훈 공동대표, 데이빗 정 포트리 사무소 매니저.

“동부지역 한인기업들과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LA에 본사를 둔 한인 회계법인 CKP (Choi, Kim&Park, LLP)가 뉴저지주 포트 리 파커플라자(400 켈비스트리트)에 사무소를 마련하고 동부지역 영업 확대에 나섰다.

최기호·김훈·박경욱 공동대표는 27일 뉴욕중앙일보를 방문, "CKP의 전문성과 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한인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3명의 공동대표가 설립한 CKP는 5년 만에 뉴저지를 비롯해 앨라배마·조지아 등 4개주에 7개 사무소, 60여 명의 직원을 둔 대형 회계법인으로 성장했다.

상장기업 회계감사는 물론 미국 내 복수 주 소득세신고·국제조세 등 각종 세무업무와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 고객은 소규모 소매업소에서부터 연 매출 13억 달러에 이르는 다국적 기업까지 다양하다.

포트리사무소를 담당하는 김훈 공동대표는 “비즈니스 규모가 커진 한인기업에는 그에 따른 차별화된 회계 서비스와 종합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고, 뉴욕·뉴저지 지역 회계사들과는 동반자 관계를 맺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85-7200.

김동희 기자 dhkim@koreadaily.com